

## 경기도, 15개 시군 들레길 860km 내년까지 조성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는 경기도 외곽을 연결하는 총 860km의 들레길을 내년까지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들레길은 경기도 15개 시군에 걸쳐있는 걷기 여행길을 하나로 연결하는 것으로, 총 60개 코스를 갖추게 됩니다.

경기도는 올 연말까지 김포~연천~가평 6개 시군에 걸쳐 344km의 시범 구간을 연결하고, 양평~안성~부천 잔여 구간 연결은 내년까지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 경기도·경기관광공사, 경기도 외곽 연결 '60코스 경기 둘레길' 본격화



경기도의 외곽을 순환하는 둘레길을 연결해 경기도 지형을 향상화한 경기 둘레길 BI 디자인 <사진제공=경기도> [ 경인방송 = 배수아 기자 ]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가 경기도 외곽을 연결하는 총 860km, 60개 코스의 경기 둘레길 BI (Brand Identity) 개발을 완료하고, 본격적으로 둘레길 조성에 들어갑니다.

경기 둘레길은 도 경계에 있는 15개 시·군에서 운영 중인 걷기 길을 하나로 연결하는 사업입니다.

각 시·군별로 조성돼 서로 단절돼 있던 걷기 길을 연결 지역 간 생태·문화·역사 등을 공유하면서 도민이 함께 걸을 수 있는 길로 조성하는 것으로 이재명 경기도지사 공약사항 가운데 하나입니다.

미에 따라 도는 지난해 보행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전체 노선을 선정하고 올 3월부터 6개월간 '함께 걸어 하나 되는'이란 의미를 담은 경기 둘레길 브랜드를 개발했습니다.

대표 심벌은 도 외곽 둘레길 코스를 선으로 연결해 경기도 지형을 형상화해 경기도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4개 권역(평화누리길, 숲길, 물길, 갯길)을 각각의 색깔로 지역적 특성을 부여했습니다.

디자인(안)은 디자인(상품) 출원·등록 후 시범구간 해당 시·군에 배포해 안내체계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에서는 올 연말까지 김포 등 6개 시·군에 걸친 344km의 시범구간을 완료하고 내년까지 잔여 구간 둘레길 연결 사업을 진행합니다.

미와 동시에 전용 앱과 웹사이트 개발도 추진해 쉬운 길 안내 및 관광지·숙박·음식점 등 다양한 관광 정보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저작권자 © 경인방송 주말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 둘레길’ 860km 60개 코스 BI 공개

평화누리길·숲길·물길·갯길 등 4개 권역 색깔로 지역 특성 부여



계에 반영할 예정이다.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는 올 연말까지 김포 등 6개 시군에 걸친 344km

경기도가 도내 외곽을 연결하는 경기 둘레길의 상징디자인(BI·사진)을 공개했다.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는 경기도 외곽을 연결하는 총 860km, 60개 코스의 경기 둘레길 BI 개발을 완료하고, 본격적으로 둘레길 조성에 들어간다고 27일 밝혔다.

도는 지난해 보행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전체 노선을 선정하고 올 3월부터 6개월간 ‘함께 걸어 하나 되는’이란 의미를 담은 경기 둘레길 브랜드를 개발했다. 도 외곽 둘레길 코스를 선으로 연결해 경기도 지형을 형상화했다. 경기도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평화누리길·숲길·물길·갯길 등 4개 권역을 각각의 색깔로 지역적 특성을 부여했다. 디자인(안)은 디자인(상품) 출원·등록 후 시범구간 해당 시·군에 배포해 안내체

의 시범구간을 완료한다. 이후 2021년까지 잔여 구간 둘레길 연결 사업을 진행한다. 이와 동시에 전용 앱과 웹사이트 개발도 추진한다. 이들 통해 쉬운 길 안내 및 관광지·숙박·음식점 등 다양한 관광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경기 둘레길은 도 경계에 있는 15개 시·군에서 운영 중인 걷기 길은 하나로 연결하는 사업이다. 각 시·군별로 조성돼 서로 단절돼 있던 걷기 길을 인접 지역 간 생태·문화·역사 등을 공유하면서 도민이 함께 걸을 수 있는 길로 조성한다.

수원=강희정 기자 kanghc@kmb.co.kr

‘경기 둘레길’ 860km 내년까지 조성... 15개 시군 연결 60개 코스

연말 김포-연천-가평 구간 개통

경기 지역 15개 시군을 통과하며 2,000리를 걷는 여행길이 생긴다.

27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와 경기관광공사는 내년까지 총 860km의 ‘경기 둘레길’을 조성한다. 총 60개 코스로, 김포에서 파주·연천·가평 이전, 여주 등 도 외곽 경계지역 15개 시군을 연결한다.

지금까지 각 시군별로 개설했으나 서



로 단절된 길을 연결해 생태문화·역사를 공유하면서 도보여행 길로 만드는 사업이다. 도는 이를 위해 60억

원의 재정을 투입한다.

도는 올해 연말까지 김포-연천-가평 6개 시군에 걸친 344km의 시범 구간을 연결한다. 이어 양평-안성-부천 잔여구

간을 2021년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다.

걷는 길 곳곳에는 유명 관광지나 포항대 있다. 북부권 시범 구간에서는 김포 장항, 대안방, 분수상선, 예기방, 근남 홍수조절지, 신탄리역, 상정호수(임구), 용추계곡(임구) 등을 지난다.

남부권 잔여 구간에는 산음자연휴양림(임구), 신복사, 금광체육지, 광태항, 공평항, 전곡항, 대부도, 시흥갯골생태 공원 등을 경유한다.

도는 코스 개발을 완료한 데 이어 최

근 ‘함께 걸어 하나 되는’이라는 의미를 담은 경기 둘레길 BI(Brand Identity·이미지)를 개발했다. 대표 BI는 경기도 지형을 형상화하고 4개 권역(평화누리길·숲길·물길·갯길)에 각각의 색깔로 지역 특성을 부여했다. 도는 전용 앱과 웹사이트를 개발해 길 안내 및 관광지·숙박·음식점 등 다양한 관광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종구 기자

경기 둘레길 내년까지 총 860km 조성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는 경기도 외곽을 연결하는 총 860km, 60개 코스의 경기 둘레길 BI 개발을 마치고 본격적으로 둘레길 조성에 들어간다. 경기 둘레길은 도 경계에 있는 15개 시·군에서 운영 중인 걷기 길을 하나로 연결하는 사업이다. 시·군별로 조성돼 서로 단절돼 있던 걷기 길을 인접 지역 간 생태·문화·역사 등을 공유하면서 도민이 함께 걸을 수 있는 길로 조성하는 것이다. 올 연말까지 김포 등 6개 시군에 걸친 344km의 시범구간을 완료하고 내년까지 잔여 구간 둘레길 연결 사업을 진행한다. 이와 함께 전용 앱과 웹사이트 개발도 추진해 쉬운 길 안내 및 관광지·숙박·음식점 등 다양한 관광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윤종열기자

## 860km 규모 '경기둘레길' 조성

### 내년까지 사업비 60억5천만원



경기도가 내년까  
지 도 외곽을 연결  
하는 860km 둘레길  
을 조성한다.

'경기둘레길'은  
도내 15개 시·군에  
걸쳐 있는 걷기 여행길을 하나로 잇는 것  
이다. 단절된 길을 60억5천만원을 들여  
서로 연결한다.

우선 올해 연말까지 북부권인 김포-  
연천-가평 6개 시·군에 걸쳐 344km 길을  
조성한다. 김포 장릉·대명항·문수산성·  
애기봉, 연천 근남홍수조절지·신탄리  
역, 포천 산정호수, 가평 용추계곡이 포  
함된다.

또 내년까지는 남부권인 양평-안성-  
부천 구간을 연결한다는 계획이다. 양평  
산음자연휴양림, 여주 신록사, 안성 금  
광저수지, 평택항, 화성 공평항·전곡항,  
안산 대부도, 시흥 갯골생태공원 등을  
경유한다.

'함께 걸어 하나 되는'을 경기둘레길 B  
I로 확장한 도는 평화누리길·숲길·물길  
·갯길 등 각 구간의 지역적 특성을 살린  
다는 방침이다.

/경기정기자 kanggi@kyeongin.com

# 경기일보

2020년 09월 28일 (월)

수도권 10면

## 경기 둘레길 BI 공개 코스 등 지형 특성 담아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는 경기도 외곽을 연결하는 총 860km의 둘레길을 내년까지 조성키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경기 둘레길은 도 경계에 있는 15개 시·군에 걸쳐 약 2천리의 경기 여행길을 하나로 연결하는 것으로, 총 60개 코스를 갖추게 된다.

도는 시·군별로 개설돼 단절된 길에 60억5천만원을 투입, 이웃 시·군과 연결해 생태·문화·역사를 공유하면서 함께 걸을 수 있는 장거리 도보여행길로 만든다.

도는 보행 안전성을 고려, 전체 노선을 선정할 데 이어, 최근 '함께 걸어 하나 되는'이란 뜻을 담은 경기 둘레길 BI(Brand Identity)를 개발했다. 대표 상징 디자인은 둘레길 코스를 선으로 연결해 경기도 지형을 형상화하고 4개 권역(평화누리길·숲길·물길·갯길)을 특유의 색깔로 지역적 특성을 부여했다. 도는 연말까지 김포~연천~가평 6개 시·군에 걸쳐 344km의 시범 구간을 연결하고 양평~안성~부천 잔여 구간을 내년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다.

북부권 시범 구간에는 김포 장릉, 대명항, 문수산성, 예기불(입구), 군남홍수조절지, 신탄리역, 산정호수(입구), 용추계곡(입구) 등이 있다.

최용훈 도 관광과장은 "경기도의 대표적인 비대면 관광 상품으로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이승구기자

# 중부일보

2020년 09월 28일 (월)

종합 02면

## 경기둘레길 BI 개발... 15개 시·군 860km 외곽 연결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가 도 외곽을 연결하는 경기 둘레길 대표 심벌 개발을 완료하고, 본격적으로 둘레길 조성에 들어간다. 27일 도와 공사에 따르면 경기 둘레길은 도 경계에 있는 15개 시·군에서 운영 중인 걷기 길을 하나로 연결하는 사업이다. 둘레길은 총 860km, 60개 코스로 구성됐다. 대표 심벌은 도 외곽 둘레길 코스를 선으로 연결해 경기도 지형을 형상화했고 4개 권역(평화누리길, 숲길, 물길, 갯길)을 각각의 색깔로 지역적 특



성을 부여했다. 도와 공사에서는 올해 연말까지 김포 등 6개 시·군에 걸친 344km의 시범 구간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이후 2021년까지 잔여 구간 둘레길 연결 사업을 진행한다. 이와 동시에 전용 앱과 웹사이트 개발도 추진해 쉬운 길 안내 및 관광지·숙박·음식점 등 다양한 관광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시은기자

## '경기 둘레길' BI 공개

2021년까지 총 860km 조성  
15개 시·군 60개 코스 연결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가  
경기도 외  
곽을 연결하  
는 총 860km,  
60개 코스의  
경기 둘레길



BI(Brand Identity)개별을 완료하고,  
본격적으로 둘레길 조성에 들어간다.

경기 둘레길은 도 경계에 있는 15개 시·군에서 운영 중인 경기 길을 하나로 연결하는 사업이다. 각 시·군별로 조성돼 서로 단절돼 있던 경기 길을 인접 지역 간 생태·문화·역사 등을 공유하면서 도민이 함께 걸을 수 있는 길로 조성하는 것이다. 이차령 경기도지사 공약사항 가운데 하나다.

도는 앞서 지난해 보행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전체 노선을 선정하고, 올 3월부터 6개월간 '함께 걸어 하나 되는'이란 의미를 담은 경기 둘레길 브랜드를 개발했다.

대표 심벌은 도 외곽 둘레길 코스를 선으로 연결해 경기도 지형을 형상화해 경기도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4개 권역(평화누리길, 숲길, 물길, 갯길)을 각각의 색깔로 지역적 특성을 부여했다. 디자인(안)은 디자인(상품) 출연·등록 후 시범구간 해당 시·군에 배포해 안내체계에 반영할 예정이다.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에서는 올 연말까지 김포 등 6개 시·군에 걸친 344km의 시범구간을 완료하고 2021년까지 잔여 구간 둘레길 연결 사업을 진행한다. 이와 동시에 전용 앱과 웹사이트 개발도 추진해 쉬운 길 안내 및 관광지·숙박·음식점 등 다양한 관광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최용훈 도 관광과장은 "코로나19 이후 관광객의 접촉을 최소화하는 변화된 관광 트렌드에 맞춰 경기 둘레길을 대표 비대면 관광 상품으로 육성하겠다"며 "이년에 개발된 경기 둘레길의 이미지를 활용한 경기도 경기 관광을 널리 알리고 전국을 대표하는 관광 브랜드로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이재은 기자

# 경기둘레길 60개 코스 내년까지 하나로 연결

도·경기관광공사 BI 개발 완료  
전용 앱·웹사이트 개발도 추진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는 도 외곽 총 15개 시·군의 총 860km, 60개 코스의 둘레길을 연결하는 사업인 '경기 둘레길' 사업의 BI(Brand Identity)·사진 개발을 완료하고 본격적으로 둘레길 조성에 들어간다고 27일 밝혔다.

경기둘레길은 도 경계에 있는 15개 시·군에서 운영 중인 경기 길을 하나로 연결하는 것으로, 각 시·군별로 조성돼 단절돼

있던 경기 길을 인접 지역 간 생태·문화·역사 등을 공유하면서 도민이 함께 걸을 수 있는 길로 조성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이차령 지사의 공약사업이다.

도는 지난해 보행안전성을 최우선으로 전체 노선을 선정하고, 지난 3월부터 6개월간 '함께 걸어 하나되는'이란 의미를 담은 경기 둘레길 브랜드를 개발했다.

대표 심벌은 도 외곽 둘레길 코스를 선으로 연결해 경기도 지형을 형상화해 도

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4개 권역(평화누리길, 숲길, 물길, 갯길)을 각각의 색깔로 지역적 특성을 부여했다. 디자인(안)은 디자인(상품) 출연·등록 후 시범 구간 해당 시·군에 배포해 안내체계에 반영할 예정이다.

도와 관광공사는 올 연말까지 김포 등 6개 시·군에 걸친 344km의 시범 구간을 완료하고 2021년까지 잔여 구간 둘레길 연결 사업을 진행한다. 이와 동시에 전용 앱과 웹사이트 개발도 추진해 쉬운 길 안내 및 관광지·숙박·음식점 등 다양한 관광정보를 제공할 방침이다. [정원욱 기자 pan192@](#)